

# 2023년 2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8. 21.]

- (광공업생산)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,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.9% 감소
  - 대전(-6.1%)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부진, 충북(-7.9%), 충남(-3.1%)은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, 세종(2.3%)은 전기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
- (건설수주)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.0% 감소
  - 대전(-66.6%), 충남(-45.1%)은 건축 부문의 부진, 충북(-49.1%)은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감소, 세종(4.1%)은 토목 부문의 호조로 증가
- (수출) 메모리 반도체,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7.3% 감소
  - 대전(-11.7%)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, 세종(-31.7%)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충북(-16.9%)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, 충남(-31.1%)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 감소
- (수입) 원유, 석탄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0.6% 감소
  - 대전(-14.4%)은 기타 경공업제품 등이 줄어, 세종(-4.9%)은 석탄 등이 줄어, 충북(-20.9%)은 기타 무기화합물 등이 줄어, 충남(-21.6%)은 원유 등이 줄어 감소
- (고용) 충청권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9%p 상승
  - 대전(0.6%p), 세종(0.9%p), 충북(0.6%p), 충남(1.4%p) 모두 상승
- (실업) 충청권 실업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2%p 하락
  - 대전(0.5%p), 세종(0.1%p)은 상승, 충북(-0.5%p), 충남(-0.4%p)은 하락
- (인구이동)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많아 4,535명 순유입
  - 대전(-309명)은 순유출, 세종(186명), 충북(994명), 충남(3,664명)은 순유입

# 2023년 2분기 시도별 지역경제동향 요약

[지역통계과, 2023. 8. 21.]

## 대전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매판매(5.4%), 서비스업생산(3.5%), 소비자물가(3.1%)는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66.6%), 수입(-14.4%), 수출(-11.7%), 광공업생산(-6.1%)은 감소
  - 소매판매는 전 부분의 호조, 서비스업생산은 운수 및 창고업 등의 호조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
 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분의 부진, 수입은 기타 경공업제품 등이 줄어, 수출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부품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8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실업자 증가로 4천 2백명 증가
  - 고용률(0.6%p), 실업률(0.5%p)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상승
- 인구는 20대, 10세 미만 등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, 50대, 60대 등에서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 309명 순유출

## 세종

- 전년동분기대비 건설수주(4.1%), 소비자물가(2.6%), 광공업생산(2.3%)은 증가한 반면, 수출(-31.7%), 수입(-4.9%), 서비스업생산(-1.4%), 소매판매(-1.1%)는 감소
  - 건설수주는 토목 부분의 호조,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광공업생산은 전기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
  - 수출은 인쇄회로 등이 줄어, 수입은 석탄 등이 줄어,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업 등의 부진,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2천 3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15~29세, 30~59세에서 실업자 증가로 6백명 증가
  - 고용률(0.9%p), 실업률(0.1%p)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상승
- 인구는 10대,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186명 순유입

## 총 복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3.3%), 소매판매(2.6%), 서비스업생산(0.8%)은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49.1%), 수입(-20.9%), 수출(-16.9%), 광공업생산(-7.9%)은 감소
 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의 호조,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업 등의 호조로 증가
 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, 토목 부문의 부진, 수입은 기타 무기화합물 등이 줄어, 수출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농업, 임업 및 어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3천 1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, 15~29세에서 실업자 감소로 4천 6백명 감소
  -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0.6%p 상승, 실업률은 -0.5%p 하락
- 인구는 20대, 10대 등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, 60대, 50대 등에서 순유입이 많이 나타나 994명 순유입

## 총 남

- 전년동분기대비 소비자물가(3.0%), 서비스업생산(0.6%)은 증가한 반면, 건설수주(-45.1%), 수출(-31.1%), 수입(-21.6%), 광공업생산(-3.1%), 소매 판매(-0.5%)는 감소
  - 소비자물가는 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 상승,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로 증가
  -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의 부진,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등이 줄어, 수입은 원유 등이 줄어, 광공업생산은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부진,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등의 부진으로 감소
- 취업자 수는 광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분기대비 3만 7천 5백명 증가, 실업자 수는 30~59세, 60세 이상에서 실업자 감소로 3천 5백명 감소
  - 고용률은 전년동분기대비 1.4%p 상승, 실업률은 -0.4%p 하락
- 인구는 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나 3,664명 순유입